

감사원, 전북도교육청 감사 착수

누리예산 미 편성 관련 "직무유기 했다" 이유로 예산 부담 주체 등 점검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전북도교육청을 포함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달 8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확진현 감사위원장은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교육청인지 정확한 결정을 내 앞으로 보육대란이 없도록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외부 4인과 내부 3인으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교육청인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각 시도교육청에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 지난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에 법적 편성 의무를 지도록



팔복새들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전주시는 3일 팔복동 신상교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해당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 새들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등 팔복새들마을 조성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로 했다. (관련 기사 4면)

한 것의 법적 위헌성 여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황 원장은 "7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감사를 착수하며 이미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도 살펴볼 예정이다"며 "이번 달 내로 착수에 빨리 결론을 내려 한

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 및 재정운영에 대한 감사를 수차례 받아도 아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번 감사 역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대한 예비조사는 지난 2일부터 착수했으며 공익감사의 경우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확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8월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은지 기자

통학차량 안전 운행방안 발표

전북도교육청 소속 통학차량 운전자는 앞으로도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3일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학차량 안전 운행방안을 발표했다.

범죄 경력 조회와 함께 추주행거리가 40만km 이상일 경우 정기검사 외에도 추가로 임시 검사가 실시되는 안전 운행방안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안전지도사들의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과 승차인원을 준수토록 했으며 통학택시의 경우 영유아는 반드시 유아보조장구를 착용한 후에 운행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폭이 좁은 운행노선 조정, 학생 승하차 확인표 작성, 의무 안전교육 이수, 불시 운전여부 확인, 안전지도사 미탑승 통학버스 제재 등이 안전 운행방안에 수록됐다.

전북도교육청에는 유·초·중·고·특수학교 414개 학교에 총 936대의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초등학교가 377대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354대, 중학교 103대 순이다. /고은지 기자

전북대, 종합청렴도 꼴찌

전국 36개 국공립대학 중... 군산대는 6위권

군산대학교가 전국 국공립대학 중에서 청렴도가 상위권에 랭크된 반면 전북대학교는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발표한 전국 3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2015년도 국·공립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2개 대학 평균 종합 청렴도는 5.65점(10점 만점)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종합 청렴도 5.88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다.

하지만 2개 대학을 구분할 경우 명암이 극명하다. 우선 군산대는 계약분야(7.43점)와 연구 및 행정 분야(5.99점)에서 각각 3등급과 2등급을 받으며 종합청렴도 2등급(6.22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다. 특히 전국 대학 중 1등급을 받은 대학은 단 한곳도 없어 2등급이 사실상 최상위 등급으로 볼 수 있다. /고은지 기자

하지만 전북대는 '전국 꼴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전북대는 계약분야(7.75점)와 연구 및 행정 분야(4.51점)에서 각각 2등급과 5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5등급(5.08점)을 받았다.

전북대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0.21점이 떨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4~5등급 대학은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공립대 청렴수준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전국 36개 대학에 대해 청렴도 조사를 벌였다.

종합청렴도는 측정대상 대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①계약분야 청렴도 ②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고은지 기자

검정고시 시행 계획 공고 15일~19일 원서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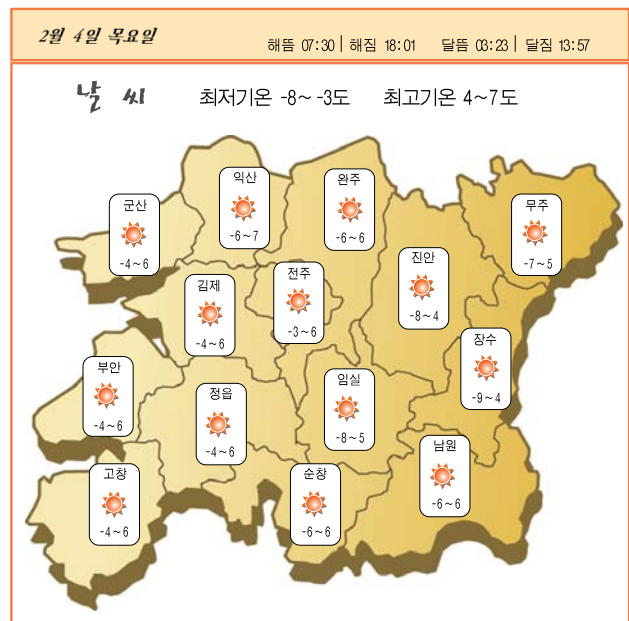
201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이 3일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원서접수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전북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과 전주 및 완주를 제외할 시·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원가능하다.

중졸·고졸 검정고시는 정북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15일부터 18일까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제적, 정원의 관리, 졸업)증명서나 검정고시 과목합격증 사진 2매(3.5X4.5cm), 응시자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장소 공고는 3월 23일 발표, 시험일은 4월 10일, 합격자 발표는 5월 12일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고은지 기자



"누리과정 공약파기, 대통령 답하라"

전국시도교육감, 긴급 기자회견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갈등과 관련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공약파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전북 김승환 교육감, 서울·광주·경기·강원교육감과 더불어 일부 및 정액 편성한 인천·경남·제주·세종·충남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과 지방

재정법 시행령으로 누리과정 편성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행위"라며 "시행령으로 법률을 넘어서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 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 지원을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위해 4일 경기 이재정 교육감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전국 10개 시도교육감들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다.

김승환 교육감은 19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고은지 기자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안돼

도교육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전북도교육청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자나 재산 거래, 타인을 돕는 행위금지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20가지 정보를 명시했다.

3일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및 교육시설 인허가나 지도감독, 학교급식 평가, 교육기자재 대여,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등 20가지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이며 활용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개정 규칙안에는 직무 관련자에게 체육대회, 동호회활동,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에 협찬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월3회 월6시간을 초과해서 외부 강연회 회의를 초과해서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더불어 직무관련자로부터 간소한 식사 등을 1인당 3만원 이상 제공받지 않는 안 된다는 조항을 '1인당'을 삭제되며 엄격화했다. /고은지 기자

천년을 숨 쉬는 전주한지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

- 한지 수의, 납골함
- 한지벽지, 장판
- 수제한지탁순지, 색한지, 공예용지, 예술지, 예견지
- 응용한지인견한지, 대례지, 한희지, 순수응용지
- 아트피부염, 미백에 효과가 있는 한지비누, 닥분말팩
- 각종 한지사 제품 넥타이, 양말, 지갑, 손수건, 러너 등

천오백 지천년(絹五百紙千年)이라는 말처럼 한지는 질기다
전주한지는 만지면 느껴지는 촉감이 부드럽다
전주한지는 통기성이 좋다
전주한지는 보온성이 좋다

전주시 <http://www.jeonju.go.kr>